

I. 서론: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1:1-15
A. 머리말(Prologue)	1:1-13
1. 제목: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	1:1
2. 보충설명—as it is written	1:2-13
a. 구약 전통 계승: 세례 요한	1:2-8
b. 예수가 신령(神靈)을 받다	1:9-13
B. 주제: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의 나라	1:14-15
II. 본론: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	1:16-15:47
A. 갈릴리/지방/피지배지역—배척당함	1:16-10:52
1. 권세/제도와와의 대립/충돌	1:16-3:35
2. 담화: 비유적	4:1-34
3. 예수의 전도 여행	4:35-10:52
a. 신학 다시하기: 경계선 없애기	4:35-8:10
1) 갈릴리/이방인 전도	4:35-6:44
· 바다를 건넌(거라신—요단강 동편)	4:35-41
· 귀신 축출, 병 고침: 군대 귀신—야이로의 딸	5:1-43
· 고향에서 배척당함, 전도여행	6:1-29
· 군중을 먹인 사건: 12 바구니 남김=>잔치	6:30-44
2) 유대인/이방인	6:45-8:10
· 바다를 건넌(벧세다)	6:45-52
· 귀신 축출, 병 고침: 요약 형식	6:53-56
·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논쟁, 전도여행	7:1-37
· 군중을 먹인 사건: 7 광주리 남김=>잔치	8:1-10
b. 총정리: 설명—제자도	8:11-10:52
1)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의 복음	8:11-21
2) 보충설명	8:22-10:52
B. 예루살렘/도시/지배자 영역—배척당함	11:1-15:47
1. 권세/제도와와의 대립/충돌	11:1-12:44
2. 담화: 종말론적	13:1-37
3. 전도 여행의 결말: 예수의 수난과 죽음, 제자들 도망	14:1-15:47
III. 결론: 예수 다시 살아내기	16:1-20
A. 첫 번째 이야기: 갈릴리로 가라	16:1-8
B. 두 번째 이야기: 안식 후 첫날	16:9-20
1. 증언과 제자들의 불신	16:9-14
2. 예수의 현현, 명령, 약속	16:15-20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 복음서를 여러 번 읽고 듣는 가운데 드러나는 의문과 문제점에 대한 답을 나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내게 일어난 질문들을 모은 것이다.

-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17, 21)
-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4:40)
-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과 “떡 떼시던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막 6:51-52)
- 두 개의 긴 담화(4장과 13장)
-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의 의미

첫째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17, 21). 예수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8:15)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그 뜻을 오해하자 두 번의 군중을 먹인 사건을 되새기며 먹고 남은 바구니, 광주리 숫자를 묻는다. 그리고 하는 말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21) 하지만 제자들로부터 어떤 대답도 없다. 예수의 추궁도 또 어떤 설명도 없다. 그리고 느닷없이 8:22-10:52의 다소 긴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 문학적 단락은 예수의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현 문학 구조상, 예수의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답이고 보충설명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소경의 눈뜸 사건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인데, 각각 이야기의 처음(8:22-26)과 끝(10:46-52)에 위치한다. 처음에는 예수가 두 번에 걸쳐 소경의 눈에 손을 대면서 눈뜸이 천천히 이루어진다. 나중에는 손도 대지 않고 단숨에 소경을 고친다. 여기서 ‘보다’(βλέπω, see)는 말은 단지 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인식함(look)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것을 이해함(understand)도 포함한다.

소경이 눈뜨는 사건들 사이에 세 번에 걸쳐 예수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해 이야기한다(8:31; 9:31; 10:33-44). 그리고 그 때 마다, 제자들의 몰이해가 이어진다(8:32-34; 9:32-34; 10:35-45). 이 중 백미가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8:29)에 대한 예수의 반응과 꾸중이다. 물론 우리말 성경은 “꾸짖었다”(ἐπετίμησεν, rebuked)는 말을 쓰지 않고, 단지 경계/경고/당부했다고 번역한다. 마태복음 16:16절의 이해, 그리고 소위 “메시아 비밀”(Messianic Secret)이라는 가설에 묻혀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생생한 증언은 후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예수는 왜 베드로의 고백을 꾸짖게 되었을까? 더 정확히 말해, 마가복음 저자는 왜 예수가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써야만 했을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13장, ‘메시아 비밀과 신학 다시하기(8:22-30)’에서 다루기로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οὐπω ἔχετε πίστιν, Do you not yet have faith, 4:40)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다. 큰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바람을 꾸짖으며 예수가 하는 말인데, 무서워함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두려움은 의지/이성과는 달리 감정의 영역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다”는 이 표현과 관련해 생각할 것이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ἔχετε πίστιν θεοῦ, 11:22)는 표현이다. 우리말 성경은 “하느님을 믿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직역하면 “하느님의 믿음(the faith of God)”으로 예수가 전한 “하느님의 복음”(the gospel of God, 1:14)과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우리들의 신학적 이해, 편견에 앞서 왜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본 후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막 6:51-52)고 그 이유를 말한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일과 떡 떼시던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 기억할 것은 “떡에 관하여”(ἐπὶ τοῖς ἄρτοις)란 표현을 성경번역본 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점이다: “그 떡 떼시던 일”(개역); “빵의 기적”(표준새번역); “빵을 먹이신 기적”(공동번역); “the miracles of the loaves”(KJV); “about the loaves”(NKJV). 흠정역(KJV) 이탈리아 표기가 암시하듯 ‘기적(miracle)’이란 말은 본문에 없는 의역이다. 여기서 헬라어 표현은 단순히 “빵/떡에 대해서”(about the loaves; RSV, NRS, NIV)라는 뜻으로, 제자들이 떡의 (상징적)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놀랐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떡의 의미지, (기적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 마가복음에는 두 개의 긴 담화가 있다. 사건 사건이 긴박하게 이어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볼 때 독립된 담화는 다소 예외적이며, 두드러진 현상이다. 더욱이 이런 담화가 두 번

나온다. 처음 담화인 4장은 예수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비유로 이야기한다. 다음은 13장에 있는 묵시적인 담화로 예수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비밀리에 행해진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이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다.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을 한 번 방문한다. 예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요단강 동편, 유대 땅을 거쳐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어진다. 11장에 가서야 예수는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등장한다(1:5; 3:8). 그리고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감시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3:22)이 예수를 힐난하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7:1) 예수와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한다.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저자는 예루살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이 아닌 어떤 정치적 집단,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지만(9:51; 13:33),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는다(3:6; 11:18). 그 이유는 표면상 신성모독죄(2:7; 14:64)지만, 실제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이는 다분히 정치적 보복이고 처형이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를 해치는데 뜻을 모은다(3:6; 12:13). 이렇게 예루살렘은 보다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갈릴리가 지방이라면, 예루살렘은 수도권을 대표한다. 갈릴리는 피지배체제 속에 위치하고 예루살렘은 지배체제의 핵심으로 재판과 형벌을 관장한다.

마가복음의 구성.

마가복음은 이야기 형식으로 쓰였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야기체는 현장감, 박진감을 높이기 위한 긴장의 연속이다. “즉시로”(εὐθύς, immediately)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만 무려 41번 쓰인다. (참고로 마태복음에 5번, 누가복음 1번, 요한복음 3번). 또한 “...하기 시작했다”(ἤρξατο/ ἤρξαντο, began to...), “또 다시”(πάλιν, again) 등은 마가복음이 특히 즐겨 쓰는 표현이다. 소위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과거를 현재형으로 묘사하는 방법(historical present tense)이 도입되는데, 무려 150번에 걸쳐 나온다 (France, *The Gospel of Mark*, 17).

서론(1:1-15)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밝힌다. 예수의 복음, 곧 하느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며, 이를 믿고 실천하고 살아내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1:14-15). 본론(1:16-15:47)은 서론에서 밝힌 것을 논증하는 형식으로 일련의 사건을 등장인물과 함께 서술한다. 여기서는 물론 이야기가 어떤 줄거리(plot)에 맞추어 전개되는데, 그 주된 줄거리는 하느님 나라/복음에 대항하는 이 세상의 지배체제/복음/신학과의 힘겨루기다. 마가복음에서는 지배세력, 군중, 친족, 제자들 모두 하느님의 나라/복음을 거부하거나 깨닫지 못한다. 결론(16:1-20)은 주제를 다시 되새기며 제자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독려한다. 갈릴리로 가서 하느님의 복음, 곧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라. 결국, 독자들/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형식상 초점은 본론 이야기에 맞추어져 있고, 그 줄거리(플롯)를 찾는 것이 독자들이 먼저 할 일이다.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읽고 놓친 것이 있으면 다시 찾으라는 말이다. 이것이 너리에 영상처럼 새겨지고 컷가에 맴도는 “갈릴리로 가라”(14:28; 16:7)의 의미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역 이름이 아닌 상징적 무대설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지배체제의 영(더러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의 영(성령)을 따라 산다, 실천한다. 이것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숨긴 또 하나의 의미다.

그럼에도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그들이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막 16:8). 가장 오래된 사본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난다. 너도 두려워하느냐? 너도 침묵하려느냐? 막 16:9 이후는 이에 대한 응답이다. ‘성서 다시 쓰기’로, 이 책이 다룰 마지막 장의 주제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까? 이미 말한 대로 먼저 막 8:22-10:52의 역할을 정하는 일이다. 이 단락이 문학적으로 하나의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은 형식과 내용에서 밝혀진다. 형식상 처음과 끝에 비슷한 사건을 넣는 수사학적 기법(literary inclusion)을 도입함으로써 이 단락은 하나의 문학적 집합체를 이루며, 그 사이에 배치된 3개의 예언이 비슷한 구조로 발전한다: 말씀(8:31; 9:30-31; 10:33-34), 오해(8:32; 9:32; 10:35-37), 가르침(8:34-9:1; 9:33-37; 10:38-45). 문제는 이 독립된 단위가 앞 단락에 연결되는가 혹은 뒤에 오는 단락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예루살렘”의 역할인데, 이미 밝힌 대로 예루살렘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등장한다(1:5; 3:7). 11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이 여러 번 언급되며(1, 11, 15, 27절), 그 후에는 15:41에 한 번 나온다. 즉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11장에 이르러 비로소 예루살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난다. 11장 이후 예수의 행적을 앞부분과 비교해 보자. (도표 참조)

	갈릴리/지방 전도(1:16-10:52)	예루살렘/수도 입성(11:1-15:47)
처음 사건	제자 부름(1:16-20)	두 제자 보냄(11:1-10)
권세와 대립/충돌	공회에서(1:21-28) 무슨 권세⇒1:21-28	성전에서(11:11-33) 무슨 권세⇒ 11:27-33
지도자들과 분쟁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당(2:1-3:6)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12:1-34)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올라옴(3:22; 7:1)	예루살렘에 주둔(12:35-44)
주요 설교	씨뿌리는 자 비유(4:1-34)	마지막 때(13:1-37)
반응	제자—깨닫지 못함(8:17, 21), no faith(4:40)	제자—예수를 부인, 도망(14:50), no faith ⇒ "have faith of God"(11:22)
	이방인, 소외된 자—예수를 따름(10:52)	여자/이방인—예수를 따름(15:39-41)

갈릴리에서 예수가 처음 제자를 부름과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서면서 예수는 두 제자를 보낸다. 갈릴리 처음 공생애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지배체제와 부딪치게 되는데,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지배체제와 마찰이 일어난다. 두 번의 설교/담화가 이어지고, 결과는 예수에 대한 물이해가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난다. 전반부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8:17, 21), 후반부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14:50). 두 경우 모두 믿음이 없는 소치다(4:40; 11:22). 그런 와중에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으니,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이다(10:52; 15:39-41).

이처럼 마가복음 11장 이후는 전반부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예수의 활동은 예루살렘 변방에서 예루살렘 지배체제의 감시 하에 있다가, 그 중심으로 들어서게 된다. 서론(1:1-15)과 결론(16:1-20)을 제외하면, 본문에 해당하는 1:16-15:47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11장이다. 1:16-10:52까지가 갈릴리/지방/피지배지역에서 예수의 행적을 그리고 있고, 11-15장은 예루살렘/도시/지배체제 하에서 예수의 행적을 적고 있다.

갈릴리—그리고 이방과 유대 땅—에서 예수의 전도 여행(4:35-10:52)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옮겨 다니며 진행된다. 여기서 바다는 단지 지형, 자연환경을 넘어 유대와 이방지역 사이를 가르는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바다에서 이는 파도는 기후의 변화보다 한층 심각한 두 문화 사이의 이데올로기 충돌을 함축한다.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4:1-34) 이후에 바다를 건너면서 귀신축출 등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고향 사람들의 예수를 배척함, 오병이어서 군중을 먹인 사건(4:35-6:44) 등은 또 다른 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함께 재현된다(6:45-8:10). 예수가 바다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6:45-52) 귀신축출 등 병자를 고친다(6:53-56).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배척당하고(7:1-37), 다시 한 번 군중을 먹인 사건(8:1-10)이 이어진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바다를 건너고, 병자를 돌보고, 배척 당하고, 군중을 먹이는 사건이 문학적 평행구조를 이룬다. 그렇다면, 바다를 오가며 경계선 없애기! 이것이 예수가 추구하는 신학/신앙의 길이다. 우리들 말로, 예수의 ‘신학 다시하기’다. 그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알아차려야 할텐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들의 처음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17, 21)의 의미로 돌아왔다. 발단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경고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8:15). 여기서 ‘누룩’은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했듯이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가르침’을 상징한다. (마 16:12은 이것을 풀어 썼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과 무대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여기서 표적(σημείον, sign)이란 말 그대로 싸인이다. 신호등처럼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표식이다. 예수는 이미 두 번 바다를 건너면서 행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보여주었다. 하늘로부터 신령이 예수 안에 들어간 후(1:10-11) 나타난 징조다. 표징이다. 예수의 삶 자체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늘의 뜻, 하느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한단 말인가? 이것이 시험하다(πειράζοντες, tempting)라는 말을 통해 저자가 고발하려는 바리새인의 편 가르기다.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란 자신들의 가치관/신학/이데올로기에 따른 일확천금과 같은 초자연적 기적이다. 예수의 신학에 대한 정면부정이요, “하느님의 복음”(1:14)을 저버리는 처사다.

예수의 행적은 한 마디로 ‘경계선 없애기’이다. 지배체제가 만들어 놓은 갈라먹기(divide and conquer), 그리고 이런 체제에 순응해 사는 정치/종교 지도자의 나약한 가르침을 타파하고 예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주창했다. 두 번의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행위였다면, 이것의 절정(highlight)은 축배요 잔치(feeding, feast)다. 두 번의 군중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이다. 화합과 용서, 서로 열싸안는 것이야말로 형제요 자매요 하느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축배의 시간, 감사와 나눔의 경계와 차별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8:11-21은 예수의 갈릴리 전도여행을 결론짓는다.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지배신학을 조심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8:17, 21). 결론적으로, 8:22-10:52는 4장부터 말하고 있는 예수의 신학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보충설명이다. 8:22-10:52이 문학구조상 앞부분에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생각해 보기

1. 마가복음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는?
2. 문학적 구성 면에서, 내가 마가복음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